

보도시점 2026. 9. 4.(금) 조간 < 2026. 9. 3.(목) 15:00 >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로 양국 혁신 스타트업 교류와 경쟁의 장 열려

- 지난 1월 ‘한-중 서밋’ 성과 있는 양국 창업 협력의 결실... 미래 협력 의지 확인
- 한국의 ‘(주)제이치글로벌’, 중국의 ‘광둥 구둥 스마트 기술 유한회사’ 등 양국 유망 스타트업 최종 우승 차지
- 최종 우승 기업에 ‘중기부 장관상’ 수여하며 글로벌 도전 격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현지시간 9월 3일(목) 중국의 스타트업 허브인 선전에서 칭화과학기술원(이하 칭화과기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Korea-China Startup Challenge)’의 결승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는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로, 한국과 중국 간 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26년 1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간 연결과 공동 성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중기부에서는 직접 창업 보육, 기술이전 등을 담당하는 칭화과기원에 방문하여 칭화과기원의 우수한 창업 지원 체계를 참관하였다.

중기부는 당시 방문으로 이어진 인연을 후속 협력으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를 추진했다.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여했던 한국 스타트업이 당시의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이력이 있는 한국 측 기업을 선발하였다.

이날 결승전에는 7월~8월 진행된 예선 및 준결승을 통과한 양국 유망 스타트업 10개사(한·중 각 5개사)가 자신들의 혁신 기술을 발표했다. 이어 양국 6명(한·중 각 3명)의 심사를 통해 최종 우승 기업이 선정되었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열띤 경연 끝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을 직접 수여하며, 양국 창업가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교류를 격려했다.

대회 결과, 한국의 ‘(주)제이치글로벌’과 중국의 ‘광둥 구둥 스마트 기술 유한회사(Guangdong Gudong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이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2위(창업진흥원장상)에는 한국의 ‘주식회사 이노파마’와 중국의 ‘링옌 과학기술 (상하이) 유한회사(Lingyan Technology (Shanghai) Co., Ltd.)’가, 3위(칭화과기원장상)에는 한국의 ‘주식회사 링크스’와 중국의 ‘칭위안 즈신 (선전) 바이오테크놀로지 유한회사(Qingyuan Zhixin (Shenzhen) Biotechnology Co., Ltd.)’가 각각 선정되었다.

대회 현장은 양국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서로의 강점을 확인하고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참여 기업들은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 결승전이 개최되기 전 ‘유비테크(UBITECH Robotics)’ 등 중국 주요 기업과 ‘투스스타(TusStar) 선전’ 등 중국 선전의 주요 창업 생태계를 방문하고, 주요 투자자 및 대기업과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하는 등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의 기회를 가졌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 1월 칭화과기원을 통해 중국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와 양국 스타트업 협력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한 이후, 오늘 이곳 선전에서 다시 한번 그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과 같은 협력이 각 국 창업 생태계 발전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책임자	과 장	박승호 (044-204-7680)
		담당자	사무관	이원석 (044-204-7684)
			주무관	곽수진 (044-204-7617)



